



## ■ 아빠 이름을 물라요?

자점이 훨씬 넘어 경찰이 야간 순찰을 하는데, 짬웃 바람의 꼬마가 고개를 품 속

이고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이상해서 꼬마에게 물었다.

경찰: “왜, 너 여기서 뭐하니?”

꼬마: “엄마 아빠가 싸워서 피난나온 거예요”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무서워요”

경찰: “이런, 너 아빠 이름이 뭐지?”

꼬마: “글쎄, 그걸 물어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 ■ 신혼부부

하와이로 신혼 여행을 온 젊은 한 쌍이 며칠동안 방에 들어박혀 보이지 않더니 사흘째 되는날, 식당에 나타났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려오자 신부가 수줍은 듯 말했다.

신부: “자기, 내가 월 좋아하는지 알잖아”

신랑: “물론 알지, … 하지만 우선 월 좀 먹어야 할 것 아니야?”

## ■ 벗기기 쉬운 걸로 하나 골라 주세요

30대 중반 젊은 남자가 어느날 속옷 가게로 물건을 사러 왔다.

브래지어를 이것 저것 살펴보길래 여종업원이 다가갔다.

남자가 속옷을 고르길래 장난기로 발동한 여종업원은 “이 브래지어는 재봉선이 없어 착용감이 좋아요, 저

것은 밑에서는 받쳐주고 옆에서는 모아줘 가슴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저 브래지어는 ‘스킨 브리’로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라며 정황하게 브래지어 장점을 얘기해 줬다.

한 참 설명을 듣던 그남자, 한마디했다.

“이것저것 다 필요없고, 벗기

▲ 밀착취재

기 쉬운 걸로 하나 골라 주세요”

〈디시인사이드〉

## ■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60살의 부부 앞에 요정이 나타났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 소원은 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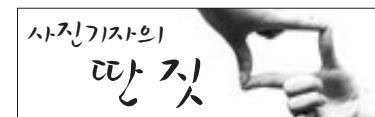
부인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과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평’, 소리가 나더니 부인 손에는 세계여행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편 소원은 뭐죠?”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 소리와 함께 남편은 90살이 됐다.



## 어린돼지의 절규 “내 젖 돌리도~”



나주시 봉황면 최희태씨 돼지 농장입니다. 황금 돼지 해라고 해 찾아갔더니 오랫만에 보는 따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침 ‘엄마 젖이 최고’라며 새끼들이 별짜 생존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찍고 보니 죽은한 모습도 있네요.

몇 녀석이 바둥거리고 있더군요. 젖을 먹고 싶은데 자

리를 찾지 못하니 농장입니다. 생의 과로움을 알 리 없는 꽤 지 새끼들, 그들도 모르는 사이 이미 생존 경쟁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계속되는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우리네 인생살이. 하지만 복돼지의 꿈을 생각하며 뛰어 보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 뉴스퀴즈 43·44회 김천용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43·44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천용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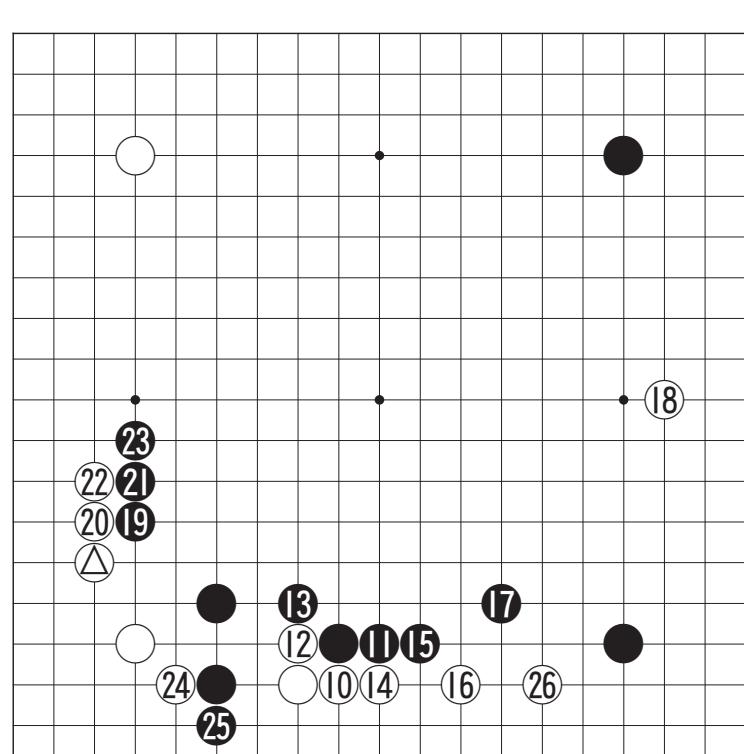
43·44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20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흥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황경수 경사와

류현식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천용·화순군 화순읍  
2등 ▲윤우현·광주 남구 월산동

제오회  
전남도지사杯 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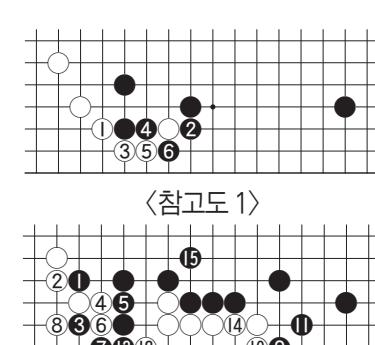
## 여성부 결승

## 여성들의 기질

## 제2보(10~26)

白 김지은 5단  
<해남군>

黑 김태현 5단  
<목포시>



여성들의 기질은 남성을 보다 더 섬세하고 평화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루이 9단이나 조혜연, 박지은 같은 여류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엄청난 전투형이라는데

놀라게 된다. 여류기사들이 남성을 보다 훨씬 더 전투지향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백 10으로 움직인 것은 조금 의문이었다. 백이 ②로 일자로 굳혔을 때는 ‘참고도1’의 백 1로 불리는 것이 상식이며 흑 6까지가 정령이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진행되었을 때는 백 18 다음 흑이 ‘참고도2’의 1로 불린 다음 3으로 두어서 선수를 잡고 9로 급습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흑 15까지 흑이 실리와 세력을 모두 차지하게 돼 대만족이다. 흑 19로 짚은 것은 밤이 느려 찬성하기 힘든 작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소식

## 中, 세계 인터넷 바둑 우승

중국의 ‘라이’팀이 인터넷 세계바둑 대회인 제4회 동양생명배 한·중·일 세계바둑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라이팀은 최근 열린 이 대회 1, 2차전에서 후아팀을 꺾고 2전 전승으로 정상을 밟았다. 한국은 ‘구렛’과 ‘쌍문’ 등 8개팀이 출전했으나 모두 8강 깅목에서 탈락했다.

중국은 출전 5개 팀 가운데 4팀이 준결승에 오르는 등 인터넷 바둑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치러진 동양생명배에서 각각 2차례 우승하는 등 인터넷 바둑계를 양분하고 있다. 대회 우승 상금은 3천만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lt;810&gt;

## ~ - what do you expect?

~한데, 뭘 기대합니까?

A: My whole body is starting to hurt with all this bouncing.  
B: It's a rough road - what do you expect?

A: I don't know. I think it has gotten a lot worse since the last time we were here.

B: The county should pave it as soon as possible.

A: 덜컹거려서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B: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무엇을 더 기대합니까?

A: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B: 정부는 가능한 빨리 길을 포장해야 합니다.

bounce : 뛰다

rough : 울퉁불퉁한, 험한

get worse : 훨씬 더 나빠지다

since the last time ~ : 지난번에 ~ 한 이래로

등용표현

- He's still young - what do you expect?

그는 아직 어린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 오하이오 니흔고 &lt;810&gt;

## 絕對、似てるわよ

아주、닮았어요

A: この映画俳優(えいがはいゆう)、從兄(いとこ)に似(に)てると思(おも)わない?

B: そういうわれてみると、似てるかも知(し)れないわね。

A: 絶対、似てるわよ。ほら、もう少し、長髪(ちょうはつ)にして、ママなんかかけたら、そっくりじゃない。

B: そういうば、そうね。他人(たにん)の空似(そらに)」といふど、本當ね。

A: 이 영화배우, 사촌형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니?

B: 그렇게 말하니까 닮은 것 같아.

A: 아주, 닮았어요. 봐, 조금 더, 긴 머리로 해서 파마 같은 걸 하면 똑같아.

B: 그리고 보니까 그렇군. ‘전혀 남인데도 용모가 닮았다’고는 하지만, 정말이네.

そっくり : 쓱빼다, 똑같다

そういうば : 그리고 보니

## 니하오 쪽구워 &lt;1&gt;

## 新年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新年快乐!

zhēnnán kuàilè

신년 快乐

A: 新春快乐!

xīncūn kuàilè

新春 快乐

A: 幸福快乐!

xìngfú kuàilè

幸福 快乐

A: 喜乐快乐!

xǐlè kuàilè

喜乐 快乐

A: 高兴快乐!

gāoxìng kuàilè

高兴 快乐